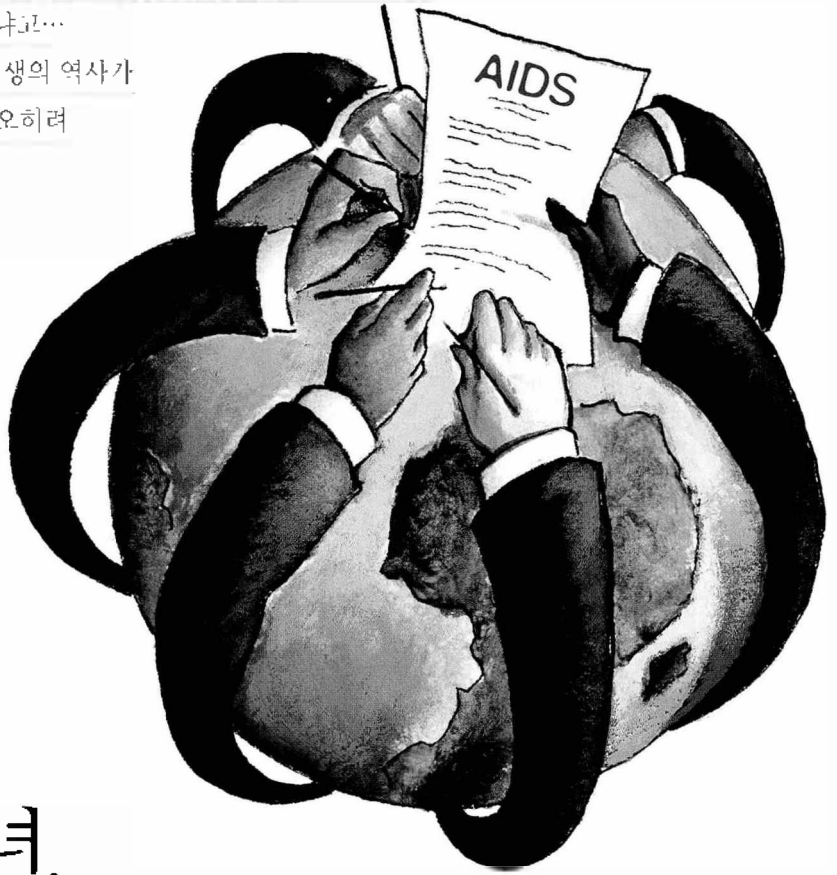


31년... 그리고 7년.

위의 숫자는 내가 한센병과 에이즈에 몸담고 있는 햇수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나에게 "그런 질병들과 무슨 원수가 겠냐" 고 묻는다. 그리고 의사가 웬 NGO냐고...

그 말에 조금은 머쓱하지만 내 인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들의 말에 오히려 나는 애정을 느낀다.



에이즈 22년, 정부와 민간단체 감염인 모두가 한 목소리 내야 할 때

글 김난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나는 7년 전 대구경북지역에서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지원을 위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NGO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병원 한쪽 구석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뇌두고 시작 했었다.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상담실이었지만 지역에서의 에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지역의 에이즈 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일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쟁겨갈 수 있었다. 그랬던 것이 잊그제인

데 벌써 7년이 훌쩍 지나갔다니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난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총 에이즈 감염인 수는 1,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에이~ 우리나라는 아직 에이즈 사업을 할 때가 아니야. 더 중요한 문제들도 얼마나 많은데?"라며 나의 활동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5,000명 시대가 왔고,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는 아

감염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쉼터사업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쉼터사업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감염인의 인권은 증진되어야 한다.

주 큰 사회의 이슈로 자리 잡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립보건원 방역과의 에이즈 담당은 아주 미약하게 존재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에이즈를 전담하는 팀까지 꾸려질 정도로 국가에서나 민간단체에서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입증해주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이즈 역사 22년을 다시 조명하고,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역사를 위해 다시 뛰어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에이즈에 대한 관심과 재정지원이 예전 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 비교에서의 성장일 뿐이다. 다른 사회의 문제들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고,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과 감염인에 대한 지원도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감염인수와 비교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가해야 할 텐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답변 내려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쉼터가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쉼터는 봉사자들 손에 맡겨진다고 하니 그 서비스의 질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다. 감염인과 그동안 그들의 인권과 권익, 사회 책임이라는 분야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만 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장 겪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채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누가 또 끝까지 이 일을 맡아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얼마나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일인가!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비전문적 봉사자들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그에 따르는 결과로 오는 사회적 문제와 정부의 책임은 커질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절적 저하 및 비전문성의 문제 역시 고스란히 감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 통계를 언젠가 본적이 있다. 감염인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할 권리도 부족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건강할 권리 외에 인간답게 살 권이었다. 인권은 그러한 것이다.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자는 말도 아니며, 이들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해주자는 말도 아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되찾아 주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감염인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따로따로 자기들만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우리의 기본적 권리는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공동의 미션(mission) 아래에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